

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제97호 2019년 7월 31일

항만·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연구실 △Tel.+82-51-797-4665 Fax.+82-51-797-4659 △총괄:이주호 러시아연구센터장 △감수:길광수 명예연구위원 △편집:김엄지 연구원

주요내용

통계로 보는 북방(p.2)

- 2023년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약 56조 달러 예상

전문가 칼럼(p.4)

- 러 극동지역-한국 협력 기회로서의 관광업 현황 및 전망

주요 동향(p.12)

• 동부(p.12)

- 극동해역 태평양 연어 어획량 증가

• 중부(p.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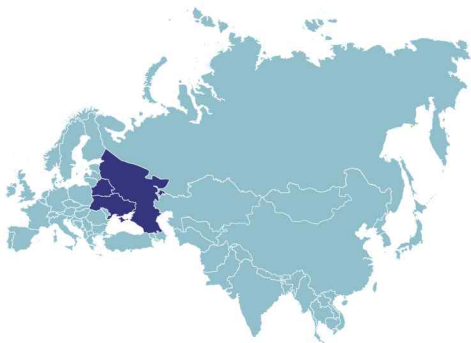
-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국경지대 철도 개통식 진행
- 아제르바이잔, 석유가스 분야 호조...유가 상승세 타고 샤 데니즈-2 유전 생산량 최고치 기록

• 서부(p.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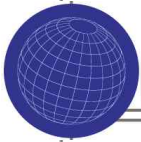
- 레나강 교량 건설로 야쿠티아 북부 지역 운송비 감소

주요 통계(p.20)

- 2019년 상반기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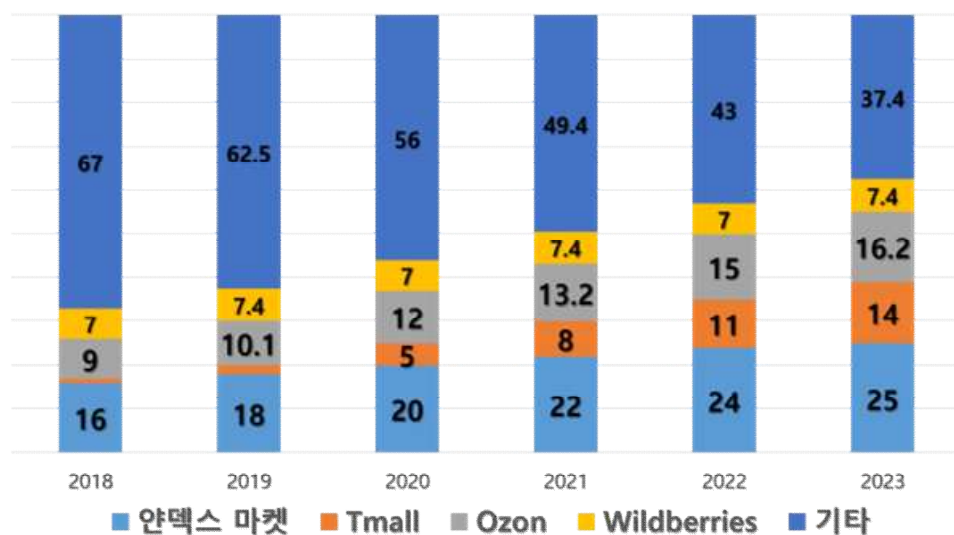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북방

■ 2023년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약 56조 달러 예상

-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약 3,491조 루블(약 56조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함
 -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7년 약 1조 루블(약 158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약 1조 3,000억 루블(약 204억 달러)로 증가함
 - 전자상거래 협회는 2019년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이 작년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2018~2023년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비교

단위: %

자료: <https://constanta.co/news/20190108-e-commerce-v-tsifrakh>(검색일:2019년 7월 30일)

- 또한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는 안텍스, Tmall, Ozon 등을 꼽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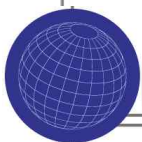
- 안텍스의 시장점유율은 2018년 16%에서 2023년 25%로, Ozon은 9%에서 16.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안텍스, Tmall, Ozon, Wildberries 등 주요 4대 기업이 차지하는 점유율 또한 계속해서 증가해 2018년에는 33%이었던 점유율이 5년 후에는 62.6%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 <https://constantia.co/news/20190108-e-commerce-v-tsifrakh>(검색일: 2019년 7월 30일)

<https://e-pepper.ru/news/rossiyskiy-ecommerce-v-2019-godu-sostavit-1-4-trilliona-rublej-prognoz-akit.html>(검색일: 2019년 7월 30일)

김엄지 연구원

051-797-4776, umjikim@kmi.re.kr



전문가 칼럼

■ 러 극동지역-한국 협력 기회로서의 관광업 현황 및 전망

타마라 트로야코바 국제학부 학장

극동연방대학교

tamaratroyakova@gmail.com

러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이 러시아의 관광 산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치 및 경제 협력에 많은 관심을 기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나인 브릿지 (Nine Bridges)" 파트너십 개념의 이행은 러시아 극동 지역과 대한민국 지역 간의 투자 협력 증진에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관광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이다. 기업들은 환대산업(숙박산업, 관광산업, 식음산업, 레스토랑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며, 교통 인프라에 투자하고 새로운 호텔 및 관광 명소를 개발하고 있다. 크루즈 관광객은 연해주 (Primorye)의 특정 지역에 방문한다. 매년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에는 수천 명의 외국인이 승선할 수 있는 정기 운항선이 있다. 태평양 국제 관광 박람회(PITE; The Pacific International Tourism Exhibition)는 매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다.

경제적 관계는 주로 사람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언어, 그리고 관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높여 국가 간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2014년 발효된 러시아와 대한민국 간 단기 체류비자 면제 협정은 관광으로 인한 시민들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것 같다. 대한민국 관광객 수는 2014년 3,055명, 2016년 50,000명 그리고 2018년 220,000명이었다[1]. 극동의 모든 관광지 중 연해주 크라이(Krai)는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장소 중 하나이다. 또한, 연해주에 있는 한국인들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대한민국과 러시아 관계의 역사와 관련된 장소에 흥미를 느낀다.

블라디보스톡, 부산 그리고 인천 사이의 지역 간 협력이 증가되고 있다. 블라디보스톡과 울산 간 에너지, 석유 생산, 문화, 관광 분야의 양국 자치단체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9월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제 산업 기획 총회 (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dustrial and Entrepreneurs)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연해주청 국제협력관광과, 연해주산업과, 블라디보스토크 관광과, 블라디보스토크 시의장 고문 등의 수장, 울산시청 대표단 그리고 러시아 기업 대표들이 모여 양국 간 관광, 경제, 조선 분야의 협력과 발전을 논의 했다. 또한 대한민국 측은 연해주 크라이와 블라디보스토크의 다양한 프로젝트(울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크루즈와 항공 노선이 개통되는 것을 포함[2])에 울산 지역 기업 대표들의 참여와 두 도시 간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2018년 11월 포항에서 제 1차 러시아-대한민국 지역협력포럼(First Russian - Korean Forum of Interregional Cooperation)이 열렸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과 한국 대표단은 Alexander Kozlov 러시아 극동 개발부 장관을 만나 러시아 극동지역의 실질적인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포항과 블라디보스토크 간 교통 체계 정보를 교환했다.

현재 DBS 크루즈 페리는 블라디보스토크와 동해 간 페리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극동 바다뿐만 아니라 강들에 관한 것도 포함하여, 크루즈 관광 개발은 중요하다. Golden Mile 프로젝트는 이미 아무르(Amur) 지역에서 이를 개발 중에 있으며 블라고베시첸스크(Blagoveshchensk)의 아무르 관광 및 레크레이션 클러스터의 작업도 강 유람선 관광 개발에 활용될 것이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제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역사, 문화 및 교육 행사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아태지역 국가가 유럽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도시 중 가장 근접하게 위치해 있는 도시이다. 2015년 "유럽을 보기 위한 단2시간 동안의 비행!" 이라는 대한항공의 광고문구를 시작으로 많은 한국관광객들은 연해주를 방문했다. 현재 블라디보스토크와 한국간 오가는 항공편은 일주일에 약 60 편이다. Aurora, S7 Airlines 등 2개의 러시아 항공사와 대한항공, 제주항공, Tway 항공, Eastar Jet, Air Busan, Air Philip 등 6개의 한국 항공사가 블라디보스토크와 한국 간 항공편을 운영하고있다. 한국 관광객은 서울에서 단 2 시간 비행으로 저렴하고 여유로운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되었으며, 블라디보스토크는 항공 교통망 발전 및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외식업계에서 특히 두드러지고있다. 또한, 한국관광객의 증가 추세 덕분에 2017년 booking.com 사용자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러시아 요리업계의 자본"으로 꼽았다.

한국 항공사 또한 관광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새로 개설된 항공편을 통해 관광객의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태평양 관광정보 센터는 러시



아 극동지역을 한국 관광객을 위한 관광지로 홍보하기 위해 에어 필립과 공동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매체는 블라디보스토크를 가장 가까운 유럽도시로 소개하고 있다. 주말에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는 젊은 청년들을 블라디보스토크나 우수리스크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을 정도이다. 이국적인 장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러시아 전통 음식점을 방문하는 등 블라디보스토크 여행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주요 산업은 한국 관광객을 위주로 형성되고 있다. 인바운드 관광업의 미래는 연해주 관광산업 개발 성공 여부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연안 지역은 한국의 역사, 특히 독립 투쟁의 역사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에 한국 관광객들의 관심은 러시아 문화, 음식 뿐만 아니라 역사로까지 넓어지고 있다. 한국 역사관 건설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동희 한국 독립 투사 기념비 건립 또한 계획되어 있다. 2019년 1월 6일 연해주와 동남산업은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 위치한 연해주에 통합엔터테인먼트 리조트내 골프장 건설에 합의했다.

2019년 5월 제5회 태평양 관광 포럼의 일환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5차 동방경제지역포럼이 개최되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한국 관광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두 도시간의 협력을 발전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6월 극동지역 전권대표인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이석배 러시아 대사와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 대표자 및 기업 대표자들을 9월 4~6일 개최예정인 제 5차 동방경제포럼에 초청했다.

2019년 7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10차 동북아지역의회대표자 포럼의 주요 의제는 국제관광이었다. 강원도 의회 한금석 의장은 동북아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일 관광 브랜드 창설을 제안했다.

지난 몇 년간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의 수가 급증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한국 관광객들에게 짧은 시간 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했으며, 2014년 비자 면제 제도로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남한과의 민간교류는 아시아인의 이주에 대한 혐오보다는 동방정책의 성공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전문가 칼럼(원문)

■ Tourism as an Opportunity for Cooperation between the Russian Far East and Republic of Korea

Tamara Troyakova, PhD in History.

Head of International Studies Department,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tamaratroyakova@gmail.com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Core University Program for Korean Studies thr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2015-OLU-2250003).

There is a sense in Russia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ies are greatly interested in polit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Russia in various fields including tourism. The implementation of the “Nine Bridges” partnership concept should give a new incentive to the growth of investment cooperation between territories of the Russian Far East and provinces of the Republic of Korea.

Tourism is one of the most dynamically growing activities of the Russian Far East. Expecting a growth of the hospitality industry, businesses are investing in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building new hotels and tourist attractions. Cruise tourism engages a specific place in Primorye, and every year Vladivostok hosts sea liners with thousands of foreign guests on board. The Pacific International Tourism Exhibition PITE is taking place annually in Vladivostok.



Since economic relations occur primarily through the interaction of people, economic relations will escalate an experience and knowledge of not only the economy, but also culture, language, and customs to intensify communication between countries. In this regard, the visa-waiver agreement of short-term visitors between Russia and South Korea, which went into effect in 2014, seems to boost a communication of citizens because of tourism. The number of touris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 2014 was 3 055, in 2016 – 50 000, and in 2018 – 220 000 people [1]. Among all subjects of the Far East, Primorsky Krai is one of the most attractive place for foreign tourists. Also, Koreans in Primorye are attracted by places related to the history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in the late XIX – early XX centuries.

The interregional cooperation is developing between Vladivostok Busan and Incheo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between Vladivostok and Ulsan was signed in September 2018 to support contacts between the two municipalities on cooperation in energy, oil production, culture and tourism. With the assistance of Representative Office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Industrialists and Entrepreneurs in the Asia-Pacific region, a number of meetings of the delegation of the City Hall of Ulsan with the heads of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ourism of the Primorsky Territory Administration, the Primorsky Territory Industry Department, tourism of Vladivostok, advisor to the head of the city of Vladivostok, as well as the heads of Russian companies to discuss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sphere of tourism, economy and shipbuilding. Also, the Korean side was offered option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ities and the participation of business representatives from Ulsan in various projects in Primorsky Krai and Vladivostok. Including the opening of cruise and air routes from Ulsan to Vladivostok [2].

On November of 2018, the First Russian – Korean Forum of Interregional Cooperation was held at Pohang. Minister of Foreign Affairs Kang Kyung-wha met with Minister for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Alexander Kozlov. The Ministers exchanged opinions on practical cooperation in the Russian Far East [3]. The Korean delegation considered the organization of transport communication between Pohang and Vladivostok.

There is currently just the one ferry route running between Vladivostok and Donghae operated by DBS Cruise Ferry. The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cruise tourism are important. It is not only about the Far Eastern seas, but the rivers. The Golden Mile project is already under development in the Amur region. The work of the Amur tourism and recreational cluster in Blagoveshchensk will also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river cruise tourism.

The Free Port of Vladivostok regime provides a friendly environment for tourism projects. The Russian Far East is pulling in tourists with their history, cultural and educational events. Vladivostok is the closest city of European culture to Asia Pacific countries, representing Russia, including its world-renowned cultural brands. With the 2015 year's slogan of Korean Air "Two-hour flight to see Europe!" the Primorye was visited by numerous touris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here are about sixty flights per week between Vladivostok and South Korean cities. Two Russian carriers, Aurora and S7 Airlines, and six South Korean carriers, Korean Air, Jeju Air, T'way Air, Eastar Jet, Air Busan and Air Philip, operate flights between Vladivostok and South Korean airports. Korean tourists get an inexpensive and interesting vacation just two hours from Seoul, while Vladivostok residents gain access to a developed air traffic network and a service industry boom. This is especially apparent in the restaurant industry: thanks to South Koreans, booking.com users recognized Vladivostok as "Russia's gastronomical capital" in 2017.

South Korean airlines have also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is market. Mutual tourist flows are growing rapidly, with the emergence of new airlines that have opened direct flights to Vladivostok. The Pacific Tourism Information Center from Vladivostok is organizing a blog tours with Air Philip to promote the Russian Far East as a tourist destination for South Korean audiences. The South Korean news companies are doing the promotion of Vladivostok as the nearest European city, a fashionable place for tourists to visit. There are many small groups of girls and boys on the streets of Vladivostok and Ussuriysk that come for the weekend. They are doing selfie on the backdrop of exotic places, visiting restaurants with Russian cousin. Just now Vladivostok is a fashionable place for them.

In Vladivostok, a whole industry is being formed, focused on South Korean travelers. The future of inbound tourism depends directly on the development of event tourism in Primorye. The seaside region has the most direct relation to the history of Korea and the struggle for its independence. South Korean tourists



show an active interest in historical monuments in the territory of the region. The Korean History Hall is planned and a monument to Korean independence fighter Lee Dong-hwee is planned. On 6 January 2019, the Development Corporation of Primorsky Krai and Dongnam Industry Co. Ltd. signed an agreement for the creation of a golf course in the integrated entertainment resort at Primorye, located near Vladivostok.

At regional session of the Fifth Eastern Economic Forum was held in Vladivostok as part of the Fifth Pacific Tourist Forum in May 2019 Mayor of Busan Oh Keo-don spoke about the growing interest of Korean tourists in the Russian Far East. In addition, Oh Keo-don underlined the demand for further cooperation [4].

In June 2019 the Presidential Plenipotentiary Envoy to the Far Eastern Federal District the Deputy Prime Minister of the Russian Federation Yuri Trutnev at a meeting with Lee Sok-bae,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ussian Federation invited Korean officials and representatives of the business community to the Fifth Eastern Economic Forum, which will be held on 4–6 September in Vladivostok [6].

The main theme of 10th Forum of Presidents of Regional Parliaments of Northeast Asia that was held in July 2019 in Vladivostok was international tourism. Han Kym Sok, Chairman of the Legislative Assembly of Kangwon Province, proposed the creation of a single tourism brand in Northeast Asia to promote the tourism market [7].

Conclusion

In the last few years there has been a real growth of South Korean tourism to the Russian Far East. For Korean tourists, the important motivator for coming to Vladivostok was an entertaining program about travel and short time to reach the city. The access of South Korean tourists was facilitated by the visa-free regime introduced in 2014 between our countries. Developing human communications with South Korea would be helpful to implement turn to the East policy not through phobias about Asian migration, but as Russia returning household to where it belongs many years ago.

SOURCES



Touris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ed Vladivostok as one of the safest city of Russia. 4.03.2019. <https://www.primorsky.ru/news/158059/> /

New option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port cities of Vladivostok and Ulsan. August 27-28, 2018.

<http://www.ic-ie.com/en/news/novye-varianty-sotrudnichestva-mezhdu-portovym-i-gorodami-vladivostok-i-ulsan/>

Foreign Minister Meets with Minister for Development of Russian Far East. http://www.mofa.go.kr/eng/brd/m_5676/view.do 8.11.2018

Tourism industry development in Far East discussed at Eastern economic forum 2019 regional session in Vladivostok. May 29, 2019. <https://forumvostok.ru/en/news/tourism-industry-development-in-far-east-discussed-at-eastern-economic-forum-2019-regional-session-in-vladivostok/>

Press statements following Russia-South Korea talks. June 22, 2018. URL: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57838>

Yury Trutnev invited Korean businesspeople to the 5th Eastern economic forum. June 17, 2019 <https://forumvostok.ru/en/news/jurij-trutnev-priglasil-korejskih-biznesmenov-na-v-vostochnyj-ekonomicheskij-forum/>

Legislative Assembly of Primorskiy Kray. July 3, 2019. <http://www.zspk.gov.ru/press-service/press-relizy/289356/>



동부권역 주요 동향

■ 극동해역 태평양 연어 어획량 증가

- 러시아 연방 수산청은 2019년 극동해역 연어 시즌 운영에 관한 네 번째 회의를 개최함
 - 러시아 연방 수산청은 태평양 연어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눈에 띄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으며 태평양 연어 어획량 증가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관찰됨
 - 올해 7월 23일까지 극동해역 연어 어획량은 약 15만 2,000톤으로 전년 대비 약 55% 증가함
 - 특히 캄차트카 변경의 어획량이 약 65%(약 56,600톤)증가하여 약 14만 3,400톤을 기록함
 - 마가단주 연어 어획량은 약 4,2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0%(약1,200톤) 증가함
 - 사할린주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약 36%(약1,100톤) 감소한 약 3,200톤을 어획함
 - 사할린주와 같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곳은 하바롭스크 변경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5% 감소한 약 543톤을 어획함
 - 연해주의 경우 다른 연방주체에 비해 어획량이 적으나 전년 동기 대비 약 20배 증가한 약 2.14톤을 어획함
- 러시아 해양수산분야 연구센터 TINRO는 현재 연어 어획의 경우 정상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어획량 증가는 카라긴스크 송어 어획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함
 - TINRO 캄차트카 지사는 카라긴스크만의 강에 송어가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 것을 관찰했으며 현재 송어는 전년대비 약 48% 증가한 약 11만 4,000톤이 어획됨
 - 홍연어, 백연어도 각각 약 2,240톤, 약 5,250톤씩 어획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어



획량을 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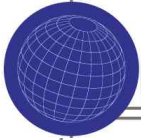
- 이에 따라 러시아 연방 수산청 어업부문 예측 분과위원회에서는 7월 17일 카라긴스크 하류의 연어 어획량을 약 1,500톤에서 약 3,540톤까지 늘리기로 결정함

- 어획된 태평양 연어 가공작업은 주로 카라긴스크 연안 및 선박에서 처리됨
 - 현재 캄차트카 동쪽 해역의 태평양 연어 어선은 총 79척으로 약 59,000톤을 어획함
 - 어획된 연어의 전량은 캄차트카 서쪽 해역 연안에 위치한 수산물 공장에서 가공·처리됨
 - 태평양 연어를 가공해 만들어진 약 33,000톤의 가공품은 주로 블라디보스토크 항 및 동남아 국가로 운송됨
- 연해주 수산청에 따르면 신속하게 수산가공품을 선적·하역하기 위해서는 블라디보스토크 어항의 냉동저장량을 늘리고 어떤 제품이 저장되어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함
 -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어항의 냉동저장량은 약 98%까지 사용 중임
 - 연해주 냉동고의 작업부하율은 약 44.7%임
 -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서부지역까지 급행열차를 통해 41회, 약 6,124톤의 수산 가공품을 운송함
 -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수산물 운송비용은 약 13.5루블/kg임

■ 참고자료 : <http://morvesti.ru/detail.php?ID=79763>(검색일: 2019년 7월 28일)

김은미 현지 리포터(국립극동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중부권역 주요 동향

■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국경지대 철도 개통식 진행

- 투르크메니스탄 국경과 인접한 아프가니스탄의 파리얍(Faryab) 주 아키나(Akina) 지역과 안드호이(Andkhoy) 지역 내 철도 개통식에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대표단이 참석함
 - 지난 7월 25일 진행된 이 행사는 아키나 철도역 준공식과 10km 구간 철도 개통식이 병행되었으며, 양국 관련 부처 대표들이 참석했음
 - 아키나~안드호이 지역 철도 개통은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과 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 협력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이번 철도 개통은 올해 2월 양국 고위급 회담의 결과로 이루어졌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산업통신부와 아프가니스탄 철도교통부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공사가 시작된 것임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입장에서는 국경 인근지역으로의 교통과 통신 인프라 확장과 물류 서비스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양국의 국경지대와 접한 투르크메니스탄 이맘나자르(Imamnazar) 지역 역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어지는 운송회랑의 주요 기점이며, 앞으로도 이 지역 철도 운송회랑은 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아프가니스탄 내 철도 건설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측 재정을 지원받았으며, 기술 인력과 장비 등도 많은 부분 투입되었음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이와 같은 철도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남북 및 동서 방향 모두 뚫어나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또한 투르크메니스탄 당국은 아프가니스탄 측에 전기 에너지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 사업 등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며, TAPI (Turkmenistan - Afghanistan - Pakistan - India) 파이프라인 등 대규모 국제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기반을 다질 것으로 예측됨

- 아프가니스탄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농산물 판매시장 모색이 중요한 시점이고, 다소 폐쇄적인 경제 패러다임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 양국 참가자들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하여 호혜적인 파트너십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투르크메니스탄 ~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의 주요 철도 노선



자료: www.dawn.com(검색일: 2019년 7월 29일)

참고자료 : State News Agency of Turkmenistan(검색일: 2019년 7월 29일)

오상호 리포터(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031-330-4145, editor405ca@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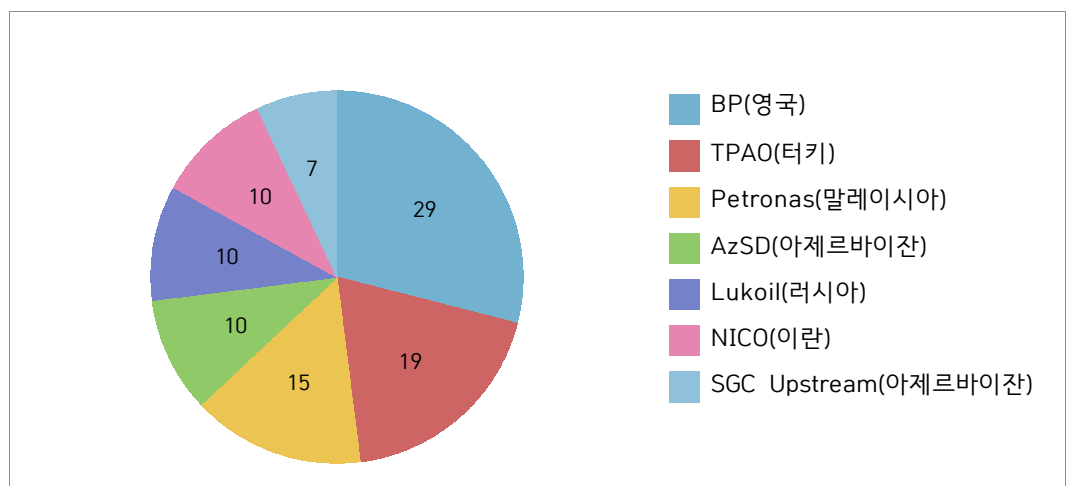


■ 아제르바이잔, 석유가스 분야 호조...유가 상승세 타고 샤 데니즈-2 유전 생산량 최고치 기록

- 바쿠에서 카스피해 동남부 70km 해상에 위치한 샤 데니즈-2(Şahdəniz-2) 유전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
 - 샤 데니즈 유전은 1999년 발견되어 2006년 개발이 시작되었음. 당시 예상 가스 매장량은 1조 입방미터로 평가되었으며, 생산층은 6,000m 아래에 위치하고 있음
 - 이후 남부 가스 회랑(South Gas Corrido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샤 데니즈-2로 사업이 확장되었고, 2018년 7월 30일 '샤 데니즈 브라보(Şahdəniz Bravo)' 유전의 2단계 사업이 시작된 이래 연간 16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가 생산되어 100억 입방미터가 유럽으로, 나머지 60억 입방미터가 터키로 수출되었음
 - 2019년 7월 현재 샤 데니즈 유전은 사상 최고치인 연간 천연가스 260억 입방미터, 원유 12만 배럴을 생산했음. 이에 유전 개발사업의 최대 주주인 BP(British Petroleum) 소속 엔지니어들은 7월 11일 영국 왕립 공학 아카데미(Royal Academy of Engineering)의 '최대 프로젝트 수행' 상을 수상했음

아제르바이잔 샤 데니즈 유전 참여기업별 지분비중

(단위: %)



자료: Sputnik Azerbaijan 2019

- 아울러 아제르바이잔의 Report지는 최근 자국산 '아제리 라이트(Azeri Light)' 원유의 가격이 0.31달러(0.47%) 상승했다고 보도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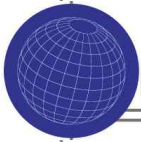


- 이에 따라 2019년 7월 아제리 라이트의 배럴당 가격은 65.78달러를 기록했음
- 한편 아제리 라이트의 최저 가격은 2001년 12월 19.15달러를 기록한바 있으며, 최고 가격은 2008년 7월 149.66달러를 기록한 바 있음

■ 참고자료 : <https://az.sputniknews.ru/infographics/20190729/421292995/azerbaijan-juzhnyj-gazovyy-koridor-shahdeniz-inzheneriy.html>(검색일: 2019년 7월 31일)
<https://denizxeber.az/2019/07/30/az%99rbaycan-nefti-bahalasib-3/>
(검색일: 2019년 7월 31일)

조용성 현지리포터(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서부권역 주요 동향

■ 레나강 교량 건설로 야쿠티아 북부 지역 운송비 감소

- 레나강을 가로지르는 도로 교량 건설이 야쿠티아 북부 지역의 물류 운송비용을 연간 약 84억 루블까지 감소시킬 것이라고 사하 공화국의 수장 아이센 니콜라이가 언급함
 - 아이센 니콜라이 공화국 수장은 해당 다리의 건설은 야쿠티아뿐만 아니라 러시아 북동부 지역의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타스(TACC) 통신이 전함
 - 레나강의 교량 건설은 야쿠티아 북부 지역의 물류운송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며, 이는 운송비의 감소와 화물 흐름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레나강 교량 위치



자료: <http://morvesti.ru/detail.php?ID=79712>(검색일: 2019년 7월 29일)

- 야쿠티아의 레나강 다리 건설은 오는 9월에 승인 예정인 ‘극동 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 초안에도 포함되어 있음
- 다리 건설 비용은 약 7~8백억 루블로 추정되며, 이 프로젝트는 3개 이상의 연방 운송 수단(철도, 하천, 항공 및 지역 도로)을 교차시켜, 해당 지역을 운송 및 물류 허브로 조성하는 것이 목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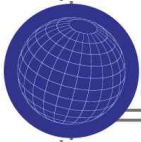


- 교량이 개통되면 지역의 화물 운송량은 현재의 약 3배에 달하는 연간 6백만 톤 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 <http://morvesti.ru/detail.php?ID=79712>(검색일: 2019년 7월 29일)
<https://rg.ru/2019/04/10/reg-dfo/most-cherez-lenu-pomozhet-iakutii-sekonomit-na-severnom-zavoze.html>(검색일: 2019년 7월 29일)
<http://yk24.ru/index/ekonomika/stroitelstvo-mosta-cherez-lenu-pomozhet-ekonomit-bolee-8-mlrd-rublej-v-god>(검색일: 2019년 7월 29일)

남가영 리포터(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neba96@naver.com



주요 통계

2019년 상반기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8/2019 증감(%)
극동 수역	66.46(+8.6%)	38.49(+3.9%)	104.95	+6.8%
북극해	14.91(+5.5%)	36.74(+35.3%)	51.65	+25.1%
발트해	55.5(+2.6%)	74.56(+8.8%)	130.06	+6.1%
아조프-흑해	41.67(-28.3%)	77.32(+2.7%)	118.89	-10.8%
카스피해	1.28(-7.6%)	2.21(+213.3%)	3.48	+41.1%
합계	179.71(-4.8%)	229.33(+9.7%)	409.04	+2.8%

참고자료 : <http://www.morvesti.ru/detail.php?ID=79538> (검색일: 2019년 7월 24일)

Peter Ruzankin 연구보조원(KMI 러시아연구센터)

7-914-345-3947, aquillar7@gmail.com